※　Facebook でレポー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ますので、ご協力お願いします。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4 月号　韓国

CIR レポート

昔々、虎がタバコを吸ってた頃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です。

早速ですが、学生の頃、友達たちと遊ぶ時に色々な物を比較した経験はありませんか。韓国ではこれを VS. 遊びと呼びます。暇つぶしに特化した遊びでした。虎とライオン、ポケモンとデジモン、コナンと金田一(二人の対決ではなく、他の人がすごく痛い目に合うと思いますが)。そしてこのような想像が実現される時の感激は言葉で表現できません。アメリカのアベンジャーズ、日本の大乱闘スマッシュブラザーズや SNK VS. CAPCOM など。登場人物を見るだけでワクワクしました。ちなみに、私の小学生の頃には主に虎とライオン、虎と熊で熱くなってた記憶があります。何を言っているの？と思ってますか。

今回は韓国と虎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1. 韓国の虎

韓国の虎は純度 100%の韓国品種だったか。いいえ、そうでなありません。実際はシベリア―満洲―韓国で生息していた虎は全部同じ品種で、シベリア虎です。しかし猟師の間では韓国で育った野生の虎は他の地域のより勇猛で、その姿が美しいことで有名だったそうです。

武器が発達するにつれて虎の数は減り、1910 年代から試行された害獣駆除事業で絶

滅危惧になりました。そして実際 1945 年にはもう野生の虎はほぼ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状態で、1950 年の戦争が終わってから、韓国には野生の虎はもういないという意見が支配的です。

2. 韓国人と虎

↑タバコを吸う虎

韓国人にとって虎は敬う存在でありながら恐怖の存在でした。ハリーポッターの名前を言ってはいけないあの人のように、虎(韓国語でホランイ)という名前を口に出すと実際虎が現れると思いましたので、虎ではなく山神霊や山中王、もしくは山君という表現を使ったそうです。

怖い存在でしたので社会の支配階級の例えとして使われたりもしました。特に小説や絵など創作物の中では悪い支配階級をからかうために虎を愚かなものとして描く場合もありました。このような過程があったため、最初はただただ怖かかった虎がだんだん親近感がある存在として認識されたのです。例えば、韓国の昔話では「昔々、あるところに…」パターンだけではなく、「昔々、虎がタバコを吸っていた頃に…」ではじまる話があります。それほど親しい感じのある生き物だ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

↑虎の絵(左)， 鵲と虎(右)

そして 18 世紀になると、地位が高い方々だけの趣味だった絵画が一般人、つまり庶民の間ではやり始めます。これを民画と言います。民画では虎がよく描かれましたが、その時松の枝に座っている鵲(カササギ)を一緒に描くのが主流でした。これは「虎鵲図」と言います。虎は厄を払い、カササギは吉報を伝え、松は長寿を意味します。新年にこの絵をプレゼントする文化があったよう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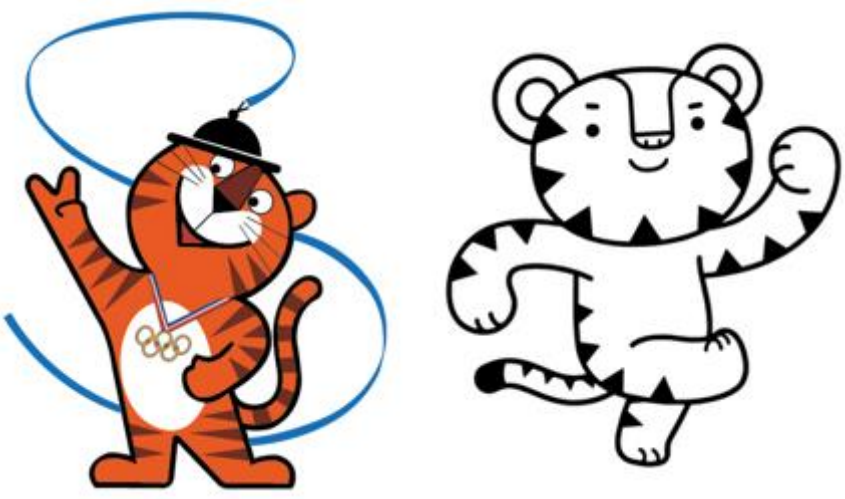
18 世紀の前には怖くて厳めしい虎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が、民画では虎の目や表情などがかわいくて滑稽な感じで描写されます。虎は怖いけど、この土地で一緒に住んできた友達だと考えたかもしれませんね。

↑**호랑이 형님**(虎の兄貴)（左），「**호랭총각**傳(虎青年傳)」（右）

今日にいたっては虎を主人公とする漫画もあり、朝鮮時代にあった虎狩りを主人公とする映画も作られました。

↑虎狩りの映画「隻眼の虎」

何より 1988 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マスコットであったホドリ、2018 年平昌オリンピックのマスコットであったスホランも虎でしたよね。



↑ホドリ、スホラン

昔中国では、韓国は虎の話が多い虎談の国という表現もあったそうです。虎が登場する昔話も本当に多いですが…これはいつか韓国の昔話についてレポートを書く時に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お楽しみに…

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タバコを吸う虎の写真出典，韓国民画センター
http://minhwacenter.com/base/business/part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2
・カササギと虎の写真出典，**신정순**(シン・ジョンシン)，共有マダン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1266980&menuNo=200018
・虎の絵の写真出典，韓国写真史研究所，共有マダン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339070&menuNo=200018
・「**호랑이 형님**(虎の兄貴)」の写真出典，**이상규**(イ・サンギュ)，ネイバーウェブ漫画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50305&weekday=sat
・「**호랭총각**傳(虎青年傳)」の写真出典，**강호진**(カン・ホジン)，ネイバーウェブ漫画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897
・映画「隻眼の虎」のポスターの写真出典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7279450
・1988 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マスコットホドリの写真出典
http://www.urbanbrush.net/downloads/%ED%98%B8%EB%8F%8C%EC%9D%B4-%EC%9D%BC%EB%9F%AC%EC%8A%A4%ED%8A%B8-ai-%EB%AC%B4%EB%A3%8C%EB%8B%A4%EC%9A%B4%EB%A1%9C%EB%93%9C-seoul-1988-character/
・2018 平昌オリンピックのマスコットスホランの写真出典
http://www.urbanbrush.net/downloads/%ED%8F%89%EC%B0%BD%EC%98%AC%EB%A6%BC%ED%94%BD-%EB%A7%88%EC%8A%A4%EC%BD%94%ED%8A%B8-%EC%88%98%ED%98%B8%EB%9E%91-png-%EC%83%89%EC%B9%A0%EA%B3%B5%EB%B6%80/

※ Facebook 에서 레포트와 관련된 앙케이트를 실시중입니다.
협력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옛날옛날,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여러가지를 비교하며 놀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이를 두고 vs 놀이라고 합니다. 시간 떼우기에 아주 좋은 놀이인데요. 상상이 실현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마블의 영화인 어벤저스 시리즈, 일본에서는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주로 호랑이 vs 사자, 호랑이 vs 곰에 대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하필 강한 동물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호랑이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구요?

이번에는 한국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 한국의 호랑이

한국의 호랑이는 한국의 오리지널 품종이었을까요? 아뇨,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시베리아와 만주, 한반도에 살고 있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같은 품종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자란 호랑이는 19 세기 당시 사냥꾼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의 호랑이보다 용맹하고 아름다운 걸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무기가 발달함에 따라 호랑이의 수는 많이 줄어 들었고, 1910 년대부터 해수구제사업이 시행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1945 년이되면 한국에는 야생 호랑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 년의 전쟁을 거쳐, 지금은 야생 호랑이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4. 한국인과 호랑이

↑담배 피는 호랑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호랑이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해리포터의 이름을 말하면 안되는 그 사람처럼, '호랑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실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라 산신령, 산중왕, 산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지배계급을 비유할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 소설이나 그림 등 창작물에서는 못된 지배계급을 풍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 호랑이를 웃기고 조금 모자란 존재로 등장시키다 보니, 나중에는 호랑이가 무섭기만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곳에' 말고도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근한 동물이었던 거지요.

↑호랑이 그림(좌), 까치 호랑이(우)

그리고 18 세기가 되면서 높은 분들의 취미였던 그림을, 일반 서민들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민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민화에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때는 소나무에 앉은 까치를 그리는 것이 주류 였습니다. 이를 호작도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액운을 물리치고, 까치는 희소식을 전해주며, 소나무는 장수를 의미했습니다. 18 세기 전에는 무섭고 위엄있는 호랑이만 그렸다면, 서민들이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호랑이가 조금 더 귀엽고 웃긴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무서운 존재이지만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였기에 그랬던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가 주인공인 만화 「호랑이 형님」(좌), 「호랭총각傳」(우)

오늘에 이르러서는 호랑이가 주인공인 만화도 있으며, 조선 시대에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을 주제로 한 영화 대호

그리고 1988 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2018 년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수호랑도 호랑이였죠.

↑1988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한국은 옛날에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호담(虎談)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의 나라였기 때문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CIR 레포트를 작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만나요!

・담배피는 호랑이, 한국민화센터
http://minhwacenter.com/base/business/part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2
・까치 호랑이, 신정순,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1266980&menuNo=200018
・호랑이 그림, 한국 사진사 연구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339070&menuNo=200018
・호랑이 형님, 이상규, 네이버 웹툰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50305&weekday=sat
・호랭총각傳, 강호진, 네이버 웹툰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897
・대호 영화 포스터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7279450
・호돌이
http://www.urbanbrush.net/downloads/%ED%98%B8%EB%8F%8C%EC%9D%B4-%EC%9D%BC%EB%9F%AC%EC%8A%A4%ED%8A%B8-ai-%EB%AC%B4%EB%A3%8C%EB%8B%A4%EC%9A%B4%EB%A1%9C%EB%93%9C-seoul-1988-character/
・수호랑
http://www.urbanbrush.net/downloads/%ED%8F%89%EC%B0%BD%EC%98%AC%EB%A6%BC%ED%94%BD-%EB%A7%88%EC%8A%A4%EC%BD%94%ED%8A%B8-%EC%88%98%ED%98%B8%EB%9E%91-png-%EC%83%89%EC%B9%A0%EA%B3%B5%EB%B6%80/